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쓸쓸한 모습들, 그래도 가족은 나의 힘

여기 가족사진이 있다. 배경은 노란 물탱크와 컨테이너 옥탑방이 있는 청운빌라 옥상이다. 왼쪽에 앉아 있는 희멀끔한 아버지는 시종 권태로운 표정이다. 대퇴부에 박힌 굵은 쇠못이 일자리와 함께 삶의 의욕도 뺏어갔기 때문일지 모른다. 어머니는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중성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얼굴은 그을렸고 굵은 팔뚝에다가 손마디가 거칠다.

글_강미

어머니의 옷자락을 배배 붙들고 있는 큰아들은 첫눈에 보기에도 불안하고 모지라 보인다. 열일곱 살의 육체와 일곱 살이라는 정신연령에서 벗어지는 부조화다. 그와 달리 아버지 뒤에 선 작은아들은 제법 또랑또랑해 보인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몸이 조금씩 여물어지고, 세상을 향한 눈빛도 호기심으로 반들거린다.

2006년 현재를 살아가는 일가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아주 오래되어 보인다. 먼 배경으로 보이는 후진 동네 때문인지 유행에 뒤떨어진 입성 때문인지 모르겠다. 금방 찍었음에도 낡아 보이는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애잔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자 사진 속 얼굴들이 하나 같이 눈살을 찌푸린다. 선부른 안타까움이나 연민은 사양한다는 뜻일 게다.

가족의 고통 함께 겪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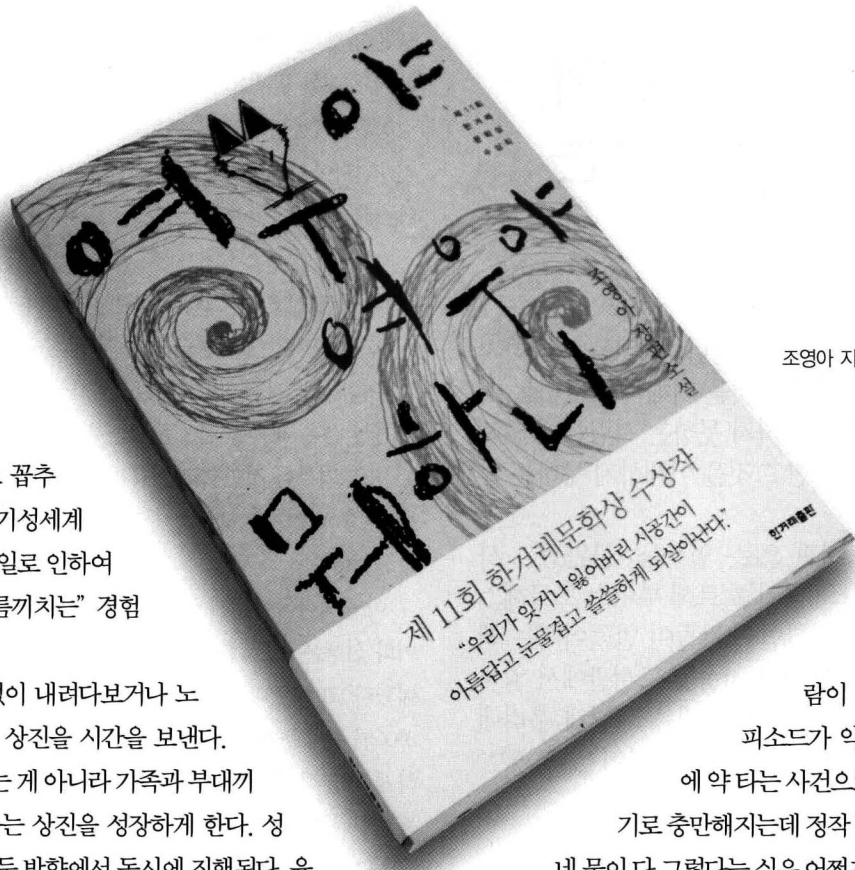
제11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열세 살 '나' (노상진)의 성장담이다. 어른들 세계의 발견과 자신에 대한 각성이라는 성장소설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별반 새로움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야기를 짜내는 힘과 속도감 있는 문체에 이르러 보면 수상의 이유가 보인다. 거기에다가 사실과 환상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능수능란함과 소재 선택의 아기자기함까지 갖추었으니 좋은 소설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건물 발과 작업을 하던 중 다리를 다친 이후 드라마만 보는 아버지, 트럭운전이 여의치 않아 포장마차로 전업하는 어머니, 언제 어디로 될

지 모르는 정신지체인 형을 보며 상진은 무엇을 생각할까? '전인슈타인'의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상진의 내면은 무엇으로 들어찰까? 아랫집에 사는 '소연'을 짝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발전할까? 셋별문구 폼추여자의 흑을 만지면서, '모호면' (상진의 형)과 폼추여자가 벌이는 성행위를 보면서 어떤 변화를 겪을까? 일단 상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우선 상진이 알게 되는 세상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쓸쓸한 곳"이다. 아버지는 64빌딩을 해체하기를 소망하나 그 건물의 무너짐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상진은 소연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소연의 가차 없는 거절에 좌절하고 만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지만 살던 집에서마저 무일푼으로 쫓겨날 판이다. 욕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 가던 전인슈타인과 폼추여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상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꾸기 위해 있다"는 현실을 아프게 각성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상진은 "지구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라고 깨닫는다. 이들 가족의 희로애락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돈이 있다.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아버지는 내내 텔레비전 속 드라마만 보면서 현실을 도피한다. 할 수 없이 생활전선으로 나선 어머니는 언행이 거칠어지는데 나중에 돈을 좀 벌게 되자 여유와 웃음을 찾게 되기도 한다. 꼬치가 잘 팔릴 때 이들 가족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할 때 짜증과 불안에 빠진다. 상진도 돈 버는 일에 나선다. 인형의 눈을 붙이는 일이 그것인데 그에 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조영아 지음 | 한겨레출판 | 302쪽 | 값 9,000원

생되어 본드 냄새에 취하고 꿈추
여자의 혹은 만지게 된다. 기성세계
로의 편입을 상징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
상진은 “두렵고 무섭고, 소름끼치는” 경험
을 한다.

저 아래 골목길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거나 노
란 물탱크에 그림을 그리며 상진을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부대끼
는 상진을, 첫사랑에 실패하는 상진을 성장하게 한다. 성
장의 징후는 육체와 정신의 두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육
체와 정신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진은 몽정을 경험
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마다 깊은 잠을 자고 몸살을 앓는다. 고
통 없이 어른 세계에 입문할 수는 없는 일, 상진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어머니의 꽃무늬 티셔츠와 립스틱을, 아버지의 고래와 발파도면을 이해
하게 된다. 바야흐로 어린이의 허물을 벗는 중인 것이다.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 경험하는 성장기

이 소설은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목의 나열과 그에 대한 묘
사가 뛰어나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주는 것
도 사실이다. 이 작품을 수작으로 만드는 현실과 환상의 조화도 상징성
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명징하지가 않다. 이를테면 황금색 색소폰은 ‘기
역’을 불러오는지 ‘희망’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여우나 귀신
고래 역시 마찬가지다. ‘쓸쓸함’과 ‘슬픔’을 상징하다가 ‘소연을 기다
리는 주문’으로 바뀌기도 한다.

성장소설에는 대개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매개자가 나온다. 상진에
게는 전인슈타인이 그런 존재인데 소설 중반부에 돌연히 사라져버린다.
그 이후는 아버지가 역할을 대신하는데 다소 어색하고 억지스러워 보인

다. 아무래도 전인슈
타인의 사라짐과
남겨진 색소폰에
좀 더 면밀한 의미부여
가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 바
람이 저절로 든다. 중심 사건과 에
피소드가 약한 것도 불만스럽다. 물탱크
에 약 타는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반발심과 독
기로 충만해지는데 정작 밝혀지는 진실이라는 게 온 동
네 물이다 그렇다는 식은 어쩐지 맥 빠지는 전개다.

상진의 또래인 <쏘리 킴>(송병수, 1957년)의 ‘쏘리 킴’이 생각
난다. 전쟁고아인 그는 순수한 내면과는 달리 구덩이에 살면서 양공주
와 미군을 연결해주는 뼈끼 노릇을 한다. <어둠의 혼>(김원일, 1973년)
의 ‘갑해’는 또 어떤가? 그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당한 아버지의 시
체를 보고 어둔 강가에서 울음을 토한다. <중국인 거리>(오정희, 1979
년)의 ‘나’는 가족과 중국인 남자의 삶을 통해, 양공주인 매기언니와 할
머니의 죽음을 통해 정신적인 성숙과 함께 초조(初潮)를 경험한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전쟁이나 분단은 아주 먼 이야기로 물러나 버렸
다. 소설 속 어린이들의 현실과 경험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하지만 아
이들은 언제나 현실과 부대끼며 성장한다. 그 삶이라는 게 애잔하고 슬
플지라도, 냉정하고 거칠지라도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
적이고 씩씩하게 뛰어든다. 게다가 상진은, 쏘리 킴이나 갑해와 달리, 버
텨목이 되어줄 가족이 있어 안쓰러움이 한결 덜하다. 쓸쓸한 모습들이
긴 하지만 가족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니까. ✪✪

강미 님은 청소년 문학가이며 현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1991년 우리
교육 소설 공모에서 <민세의 골리앗>이 당선했고, 2005년 제3회 푸른문학상에서 <길
위의 책>으로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